

우리 모임에선

대구 택시정법회 11월

대구개인택시정법회(회장 김주본)는 28일 오후 능인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대구지역 신협단체장 등 사부대중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1부에서는 동화사 주지 무공스님이 유공자 표창을, 2부에서는 보광원 조실 화산스님이 기념법문을 했다.

상주산업대 법우회 총회

상주산업대교직원법우회(회장 김명환)는 25일 문경 대승사에서 순례법회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40명의 회원들은 법회가 끝난 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으며, 사불암 등을 답사했다. 지난 92년 9월 20일 창립된 법우회는 예전 연꽃마을에 의류와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주법우회 추계공양

상주시법우회(회장 박옥식)는 18일 시내 왕산에 모셔져 있는 보물 제119호 상주북룡리 석불좌상(비로자나불)에 대한 추계 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상주시로부터 문화재관리권을 위임받고 있는 법우회는 이날 상주시암연합회 회장 만성스님, 상주포교당 주지 정관스님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법공양을 올리고 성보보존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교회 회원 100명은 24일 봉도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충북지장회 간병인 교육

충북지장총사회(회장 여현정)는 11월 5일부터 28일까지 청원군 문외면 지장정사에서 직업간병인 및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1개월간 간병, 호스피스, 영습교육을 수료한 50여명의 봉사회원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케어, 불교의식에 맞는 영습,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봉사활동을 한다.

중앙승가대학 강사인 보각·혜도스님, 청주불교방송 이사장 각현스님, 자광원 김경지원장,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노석성원장 등이 강의를 맡는다. (0431)54-2258

불기법 총회 · 8월법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11월3일 오후 6시30분 한국불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제22차 정기총회 및 창립 8주년 기념 자축연을 갖는다.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단 및 감사 선출, 한국불교기자상 제정 등이 논의 된다.

'자비의 묘약'으로 못생명 살려

탐방 서울대병원 불자회

18일 서울대병원 지하 A강당에는 의사와 간호사, 환자 및 보호자가 한 마음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병원불자회(회장 조보연교수·교육연구부장) 회원 1백50명과 환자·가족 50명등 2백여명의 수계 제자들은 정각스님(용주사 주지)을

정스님 등 지도법사님들의 큰 원력 때문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에 대해 86년 당시 지도법사를 맡았던 정목스님은 "의사·간호사는 보살이자 존수행자"라면서 "부처님께서 성불 후 대의왕(大醫王)이 되리라 하셨듯이 보살행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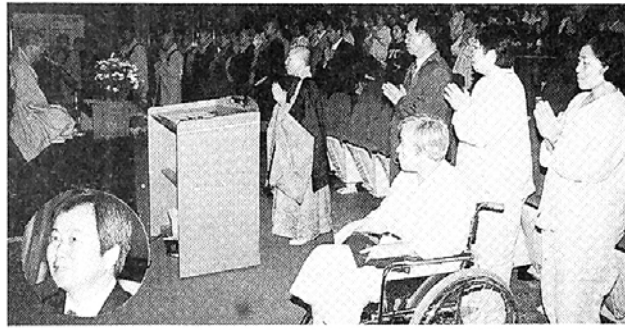
국내 첫 병원법회...85년 창립·회원 150명 불우환자·연꽃마을후원등 보살행 활발

계사로 보살5계를 받으며 불자로서 거듭 태어나는 한마당을 연출했다. 특히 이날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병원포교에 앞장서 온 직원불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조보연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0년 동안이나 매주 토요일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빠짐없이 법회를 열 어온 것은 신도들을 위해 불원천리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정각 태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법회인 서울대직원불자회는 85년 5월 조명숙(현 부회장) 외과간호과장과 김인숙 수간호사 등 불자 간호사 10명의 발기로부터 비롯됐다. 성열스님(경남포교원)이 초대법사를 맡았으나 법당이 없어 처음에는 직원불자들만 강당을 빌려 법회를 보았다. 그러다가 초대 회장인 한용철교수가 병원장으로 취임(86.5)한 얼마 뒤인 87년 4월 6평

방의 법당이 어린이병동 1층에 생기기전부터 환자·보호자들도 같이 법회를 보는 등 본격적인 병원 포교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정기법회와 두 달마다 떠나는 성지순례를 발판으로 보살심을 내면화하는 한편 환자 위문, 초파일 연등 만들어 달기, 불우환자 돕기(매년 환자 4~5명에 게 1백만원씩), 소책자·연꽃마을 후원 등 적극적인 신행도 꾸준히 펼쳐 왔다. 이처럼 열성이다 보니 나중에



가량의 법당이 어린이병동 1층에 생기기전부터 환자·보호자들도 같이 법회를 보는 등 본격적인 병원 포교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는 환자들도 자연스럽게 법당에 들어서게 됐다. 작은 법당이지만 직원들과 환자·가족들의 정신적인 안식처와 수행·기도처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물론 이같은 서울대병원법회의 성장은 9년째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은진스님(서울 지장사)과 조계사 불광사 소속 주부자원봉사단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재경 기자

'보련회' 서울지회 창립 경전공부·수지침 강의

의료보험연합회 서울지부 직장법우회인 '보련회 서울지회' 창립법회가 3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백화점 내 사업장 회의실에서 열렸다.

초대회장에 내정된 강영욱씨 등 발기인 9명은 창립법회 때까지 매주 월요일 정오에 지도법사인 연화장세계 이일행법사의 지도로 (초보심자경문) 강독과 수지침 강연회를 번갈아 여는 등 불심을 다지면서 회원 확보에 정성을 쏟고 있다.

이번 보련회 서울지회의 창립은 의료보험연합회 직원불자회인 보련회(회장 오정영)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지난 90년도에 창립된 보련회는 연화장세계 임기준법사의 지도로 매달 첫·셋째 월요일 정오에 경전공부와 수지침 강의 등으로 신행을 펼쳐왔다.

병원법회 전국 17곳 활동

환자·가족 '휴식처'...교계지원·자원봉사 절실

"병든 사람에게는 선택해 닦아주며 침을 짜고 의약을 쓰며, 격정 기쁨 진심을 품지 않게 하며 간병인을 향하여 순종하게 하라." <중일아람경>

가장 불우한 이웃들이 있는 병원, 어느 곳보다 부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필요한 곳이다.

85년 5월 서울대병원직원불자회가 창립한 이래 생긴 병원불자회는 모두 17곳. 열악한 환경 아래서도 매년 한 두 곳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창립된 인천길병원 불자회(회장 장석배)와 올해 11월 초 발단개원 예정인 영남의료원 영남회(회장 강복수) 등 6곳을 제외하고는 자체 법당을 마련, 환자

와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귀의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의료원 서울중앙병원 동국대경주병원 국립경찰병원 국군수도통합병원 한국보훈병원 등 자체 법당이 있는 병원법회의 지도법사님들은 지난 95년 2월 병원법당 지도법사협의회(간사 지홍스님)를 발족시켜 정보를 공유하며 병원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한동안 추진된 (가칭)병원불교연합회의 구성은 직원불자들의 시간 제약, 업무가중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답보상태.

병원법회 관계자들은 교계의 지원으로 자체 법당을 마련, 지도법

◇전국 병원법회

병원법회	연락처
서울대병원 법당	02)760-3176
국립경찰병원 법당	02)430-2555
삼성의료원 불교실	02)3410-2114
한국보훈병원 법당	02)225-0361
국립의료원 법당	02)265-9131
국군수도통합병원 법당	02)651-0355
서울중앙병원 법당	02)224-7892
동국대경주병원 법당	0561)770-8237
동아의료원 영남회	051)240-2111
부산대병원 법우회	051)254-0171
부산백병원 불교법우회	051)894-3421
부산시립의료원 불자회	051)850-5243
영경의료재단병교병원 의우회	053)655-0300
영남의료원 영남회	053)620-4372
동국대병원 불교법우회	0562)73-8111
경북대병원 불교법우회	053)420-5125
인천길병원 불자회	032)460-3114

사 스님이 법회를 꾸준히 지도할 경우 병원포교의 활성화는 어렵지 않다고 지적한다. 자원봉사 등 불자들의 물심 양면의 지원이 큰 힘이 된다는 뜻이다.

불자예술회법당 상량

대한불자예술회연합회(회장 박규재)는 11월 11일 천왕산 본각사(주지 백해)에서 예술회법당 상량식을 봉행한다. 약 12여년의 예산으로 2년전부터 공사가 시작된 대웅전은 지상 86평, 지하 100평 규모. 요사채 등 부속건물 완공에는 9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불자예술회법당 정회원은 3백여명이며, 일반회원은 2만5천여명에 달한다. (02)655-0533



이목당 서운대종사 부도·비 제막식

이목당 서운대종사 부도 및 추모비 제막식이 23일 오전 강화 진동사(주지 장운)에서 문도대표 세용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현향 현화와 성수(법수선원 조실)스님의 법어, 월주(조계종총무원장), 설경(종회의장)스님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벽암(원로회의의원) 송산(원로회의의원) 탄성(원로회의의원) 월탄(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지선(백양사주지)스님 등이 참석했다.



은혜사 일연성사 추모학술대회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성사 현창(顯彰) 학술대회 및 성지순례가 10월19일 일연학연구소와 경산문화연구소 주최로 은혜사와 운문사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타스님(일연학연구원 이사장 은혜사주지), 무비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 권영철박사(효성가톨릭대학교 원장) 김세기관장(경산대 박물관) 최석의원(경북도정각회) 등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가했다.



대구 10개 시민단체 공선협 발대

제15대 대선을 두달 남지않은 지난 18일 선거문화개혁과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대구 공명선거실현 시민단체협의회' 발대식이 대구YMCA 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대구경찰청 대구홍사단 대구여성회 대한불교교대불회 원불교청년회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권선거 혁명 △부정선거 감시 △공정정보도 달성 등을 다짐했다.



우리는선우 창립 6주년 법회

우리는선우(이사장 남지심) 창립6주년 기념법회가 18일 선우법당에서 봉행됐다. 부처님 점안식도 함께 열린 이날 법회에서 김중서 교육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불자로서 항상 보시하는 생활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승사 주지 범성스님을 비롯 남지심 이사장,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교수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열린가람은 17일 개원기념으로 노인무료합동결혼식 및 경로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포항에 복지법인 생겼다

운흥사 '열린가람' 17일 개원

노인·장애인 후생사업 전개

포항불교계에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이 탄생했다. 운흥사가 10월14일 경북도의 승인을 얻은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대표이사 남승스님)'이 바로 그곳.

열린가람은 17일 개원기념으로 노인무료합동결혼식 및 경로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결혼사건 한장 없이 살아온 11쌍의 노부부들은 이날 백년가약을 서약하고 제2의 인생출발을 다짐했다. 관장인 남승스님은 "가난하고 의지할데 없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0562)48-6165

포항=이윤호 기자

제34회 감로사 천화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본 계단은 6·25 피난시절인 1951년도에 큰스님네가 감로사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교훈받아 사부대중들에게 '보살계를 받아 실천함만이 국난퇴치와 자성성불의 지름길'이란 보살계를 설하셨습다. 이후 정정윤사신사 자운대중사께서 보살계를 설하시어 수계 받은 수많은 사부대중이 한국불교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운대율사의 수계자인 가산 지관 큰스님께서 그 계맥을 이어받아 제34회 보살계의 큰법문을 3일간 (오전 10시, 오후 2시 두번) 설하오니 많이 수계 동참하시어 국태민안과 가내안녕을 이루어 마침내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수계법사 : ① 전계대화상 : 가 산 지 관
② 갈마아사리 : 오 룬 법 회
③ 교수아사리 : 황 사 혜 증
- 수계일시 : 입제일 - 음력 10월 4일(양력 11월 3일) 오전 10시
회향일 - 음력 10월 6일(양력 11월 5일) 오전 9시
- 수계장소 : 감로사 천화계단
- 동 참 금 : 3만원
- 지 참 물 : 꽃, 공양미, 과일 약간씩
※ 보살계 수계산림후 회향방생 갑니다.

대한불교 조 계 중 감로사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번지 ☎ (051)809-0926

수광원(壽光院)입방 안내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자연풍광이 수려한 경기도 안성 도솔산 도안사에 재가불자들의 염불전문 수행처인 수광원을 개원합니다. 재가불자들의 염불수행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수행과 생활의 보급지대로 마련된 수광원에는 누구나 입방이 가능합니다. 단지 대중생활에 불편이 없는 분이던 됩니다. 특히 연세드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는 뜻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기로 했습니다. 도솔산의 조용하고 인편한 자연 환경 속에서 세상번뇌를 떨쳐버리는 일상염불과 수행을 통한 적당한 운동(도량들이)·균형있는 식사와 무리없는 규칙적인 생활은 노후의 새롭고 활력있는 삶이 되실것입니다. 친지나 이웃과 함께 신청하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입방일 1997년 11월14일 오전10시 30분(음10월 15일)

동참금 매월100,000원(생활비)

지도

김열권 선생

인원

20명(집수순에 의함)

대한불교조계종반야바라밀경사 보현도량

도솔산 도안사

주 지 승 암

연락처: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용성리 1178-1

전화: 0334-676-8700